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성도의 참된 교제

빌레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1, 19절).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경일 것이다. 빌레몬서의 특징적 주제와 주요 내용은 자발적 선행이다(14절).

[문 1-2]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사랑을 받는 여제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1, 9, 10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성도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른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 일은 전도하고 목회하는 일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한다. 빌레몬은 한 교회의 담임목사 즉 목회자이었던 것 같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6-9, “나는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을 받는 여제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다. 아킵보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라고 표현된다. 그는 그 교회의 목회의 일에 참여한 사역자이었던 것 같다. 바울은 골로새서 4:17에서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말했다. 모든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군사들이며, 특히 사탄과 악령들의 손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다.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음을 보인다. 로마서 16:5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원문에), 골로새서 4:15에 ‘눔바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본문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등 초대교회는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다. 구약교회와 달리, 신약교회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중시한다. 건물은 교회의 모임과 교제와 활동을 위해 편리한 정도면 충분하다. 신약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설교와 성경강해와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영적 교제이며,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성도들에게 큰 복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의 결과이다.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성화(聖化)[거룩하여짐]를 위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평안은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 또 경제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인생의 참된 복인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온다.

[4-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지금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를 쉬지 않는다. 우리도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빌레몬을 언급했다. 이것은 기도의 교통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정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 중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좋은 점을 감사하고 그에게 필요한 점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교통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즉 주 예수께 대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충성해야 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나라.

다시 번역하면, “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혹은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되므로 효력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임을 보인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세상적 놀이나 오락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운동이나 등산이나 소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도 아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즉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교제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3에서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이어야 한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구원, 새 생명, 경건과 사랑의 새 마음가짐, 의, 영생, 천국 소망 등을 가리킬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굳세어진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새 힘을 얻었으니 내게[우리게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감사(전통사본)과 위로를 얻었노라.

성도들의 마음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 그것은 그의 참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성도들의 마음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인해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의 고난 가운데서이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많

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다. 오늘날도 진실한 성도들의 소식, 곧 참된 믿음의 열매의 소식과 말씀 순종의 소식을 듣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큰 감사와 위로가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 일행과 빌레몬 가족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교제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3에서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다(1절). 빌레몬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였고(1절) 아키토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였다(2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였다. 빌레몬은 주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다. 또 바울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새 생명을 가리켰다고 본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또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였고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렀고(1절) 또 아마 그의 아내인 압비아를 “사랑을 받는 여자”라고 불렀다(2절, 전통본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였다. 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한다고 말했다(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기도 중에 그를 말할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함을 듣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였다(4-5절). 또 바울은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다”고 말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교제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 상대를 말하게 되고 또 그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셋째로, 성도의 참된 교제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리게 되고 또 서로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이 된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니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새 힘을 얻었으며 바울 일행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렸고 또 위로를 얻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20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

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3-4에서 그의 서신을 통해 그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썼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살고 성경에 교훈된 바를 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은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 성도의 참 교제는 이와 같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을 주는 유익이 있다.

주일오후설교 **에서의 자손들**

[창 36:1]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창세기 25: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곧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원어는 ‘붉은 것’이라는 단어인 이돔에서 나왔다. ‘대략’이라는 원어(톨레도스)는 창세기에 11번 나온다(2:4 5:1; 6:9; 10:1; 11:10; 27:25:12; 19; 36:1, 9; 37:2). 그것은 ‘대략’ ‘개보’ ‘사적’ ‘후예’ ‘약전’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이 단어가 창세기 전체에 반복하여 사용된 것은 창세기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편집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저작임을 증거한다. 창세기의 인간 저자는 모세이다.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그것도 둘씩이나 취했다. 그의 아내들은 필경 우상숭배적이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에서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은 그에게 경건함이 없었음을 보인다.

본문은 에서가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했다고 말한다. 창세기 26:34-35는 그가 헷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고 기록했고, 창세기 27:4에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해 내 생명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에서의 아내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보이며 또 그들이 다 헷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린 것은 대략적 의미나 대표적 의미를 가졌거나 혹은 종족의 혼합이 있었다고 보인다.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창세기 28:9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또 취하였다고 기록한다. 마할랏도 바스맛이라는 다른 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는 에서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 에서는 스

스로 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성경은 일부일처를 교훈한다. 에서가 세 아내를 취한 것은 그의 무절제한 욕망을 나타낸다.

[4-5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에서가 가나안 땅에 그 부친 이삭 가까이에서 거하는 동안, 아다는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르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다. 에서의 자녀들은 점점 많아졌다.

[6-8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세일 땅, 에돔 들에 거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었다. 그러나 본문은 에서가 가족들과 소유물이 많아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기 어려웠으므로 그를 떠나 세일산에 거했다고 증거한다. 그것은 야곱이 돌아온 후 이제 거주 지역이 완전히 나뉘었다는 뜻일 것이다. 후에 신명기 2:5이나 여호수아 24:4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 자손의 소유로 주셨다고 증거했다.

[9-11절]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가운데 데만이 있었다. 또 본장 15절도 에서의 자손 중 데만 족장을 언급한다. 욥기에 보면, 욥을 방문한 친구들 중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다(욥 2:11). 욥기는 에서의 후손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하였는데(욥 1:1), 예레미야 애가 4:21은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라고 말한다. 또 70인 헬라어역 구약성경은 욥기 끝에, 욥은 시리아어 책에 이두매와 아라비아 국경지역의 아우시스 땅에 살았고 에서의 아들인 자레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5대손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12-19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12절은 엘리바스의 첩 딘나가 그에게 아말렉을 낳았다고 증거한다. 16절도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아말렉 족장을 언급한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의 원수이었던 족속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은 광야생활로 피곤했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겼지만,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14절).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했다(신 25:19)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다(삼상 15:2-3).

[20-23절] 그 땅의 원거민(原居人) 호리 족속

세일 땅에는 본래 호리 족속이 거하고 있었다. 본문은 그들의 지순에 대해 증거한다. 창세기 14:6은 아브라함 때에 호리 족속이 세일산에 거하였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에서 지순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 그러므로 신명기 2:12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지순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고 기록하였다.

[24-30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나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험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발한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31-39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데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35:11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신명기 17:14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 그들 주위의 열국같이 그들 위에 왕을 세우려는 뜻을 가질 것을 예견하며 말했다. 모세 당시에 주변국들에게는 왕이 있었다. 본문은 에돔 땅에도 왕이 있었음을 증거한다. 본문에는 ‘왕이 되었으니’ ‘왕이 되니’라는 표현(와이물록 קִינָה)이 8번이나 반복해 나온다(32-39

절). 33절의 ‘세라의 아들 요밥’은 읍기의 읍이라고 보인다.)

[40-43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디나 족장, 알와 족장, 여벳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밍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장의 많은 사람과 족속의 이름은 성경이 역사적인 책임을 증거한다. 우리는 노아 자손들의 분포도가 기록된 창세기 10장에서도 성경의 역사성을 보았고 본장에서도 그것을 본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적지 않은 목사들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을 진실히 증거한 책이다(눅 1:1-4; 요 21:24). 성경의 역사는 믿을 만한 참된 역사이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본장은 이방인 에서의 자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에서도 돌아보셨음을 감사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다. 그는 특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 구원하신다. 우리는 전에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구약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엡 2:11-12, 19).

셋째로, 에서의 자순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없었다. 본장은 에서의 자손들의 명단과 그들 가운데 왕이 있었음과 또 에서의 처가쪽 호리 족속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음을 증거하는 정도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은 에서의 자손들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일반적으로, 에서의 자손들은 불경건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 자손들처럼 육신적 욕구대로 살지 말고 돈 사랑, 육신의 쾌락 사랑, 세상 사랑의 헛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성경에 교훈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힘써 행해야 한다.

1) 헬리어 70인역 읍기 끝에, 읍은 시리아어책에서 이두배와 아라비아 국경지역의 아우시스(Ausis) 땅에 살았고 그의 이름이 요밥이었다고 묘사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